

## 한-멕시코 공동연수:기후변화와 녹색성장

### - 임소영 초청부연구위원(국제개발협력단)

#### I. 출장개요

##### 1. 일시 및 장소

가. 일시: 2012년 10월 14일(일) ~ 10월 19일(금)

나. 장소: 멕시코 멕시코시티, 푸에블라시티

- 1) 10월 15일(월) : 멕시코 Centenario Park, State Park Flor del Bosque
- 2) 10월 16일(화) : 멕시코 외교부(Mexic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)
- 3) 10월 17일(수): Montrey Institute, Mexico Campus

##### 2. 출장 경위

가. 출장자 : 국제개발협력단 초청부연구위원 임소영

나. 요청 배경

- KOICA는 2011년부터 멕시코와 공동으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 관한 공동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, 올해에는 2차년도 연수를 실시함.
- 동 프로그램은 삼각협력의 일환으로서,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중남미 9개국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연수 대상으로 함.
- KOICA가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중 현지 워크숍 교육의 실시와 전체 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모니터링 및 사업제안을 담당할 전문가 파견을 요청해 온 바, 1차년도 프로그램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온 상기 출장자가 파견됨.

##### 3. 목적

가. KOICA와 멕시코가 공동으로 실시한 “KOICA-멕시코 공동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워크숍(Joint Training Program between KOICA and Mexico on Climate Change and Green Growth)”의 일환으로 국제 기후변화 이슈 및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에 관한 교

## 육프로그래밍 운영

나. 2012년 KOICA의 지원으로 멕시코 몬테레이 과학기술대가 구축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및 산업시찰 모니터링

### 4. 주요활동

#### 가. 강의

##### 1) 한국의 환경 및 녹색성장 정책

-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환경문제 및 이의 해결을 위해 도입한 환경정책과 제도
- 환경전담 부처의 발생 및 진화
-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 계획
- 녹색성장위원회 및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(GGGI) 소개

##### 2)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

- 기후불의(Climate Injustice)를 중심으로 하는 개도국의 불평등한 기후변화 피해 소개
  - 전 세계적으로 불균등한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량
  - 개도국에서 더욱 심각한 기후변화 취약성
-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
  - 물과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현황
  - OECD, 세계은행의 지원현황
- 한국의 지원 사례 소개
  -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(EACP)

나. 참가국별 과제 및 보고사항에 대한 검토

다. 온라인연수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안

라. 산업시찰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안

## II. 한국 전문가 활동에 대한 분석 및 자체평가

### 1. 활동 일정 및 내용

#### 가. 10월 14일(일)

- 1) 인천공항출국
- 2) 미국 Los Angeles를 경유하여 Mexico City 도착

#### 나. 10월 15일(월)

- 1) 멕시코시티에서 푸에블라시티로 이동
- 2) Centenario Park 견학 및 모니터링
- 3) State Park Flor del Bosque 견학 및 모니터링
- 4) UN 글로벌 기후감독 프로그램 견학 및 모니터링

#### 다. 10월 16일(화) : 멕시코 외교부

- 1) 개최식 참석 및 멕시코 측 관계기관 강의 모니터링
- 2) Korea's Environment and Green Growth Policy 강의 실시
- 3)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ddress Climate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강의 실시
- 4) 멕시코 측 Water and Climate Change 강의 모니터링

#### 라. 10월 17일(수) : Montrey Institute of Technology and Higher Education

- 1) 벨리즈 등 중남미 참가국 발표와 모니터링
- 2) 온라인 프로그램 과제 평가
- 3) 온라인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수료식 참관 및 개선방안 논의
- 4) 귀국 준비

#### 마. 10월 18일(목)

- 1) 멕시코시티에서 LA행 항공기 탑승
- 2) LA에서 서울(인천행) 항공기 탑승

#### 바. 10월 19일(금) : 서울도착

### 2. 강의평가

- (1) 한국의 환경 및 녹색성장 정책

구 분	강 의 내 용
강의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문명: 한국의 환경 및 녹색성장 정책</li> <li>○ 영문명: Korea's Environment and Green Growth Policy</li> </ul>
강의 일시 및 장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강의일시: 2012년 10월 16일(화) 13:30 ~ 15:00</li> <li>○ 장소: 멕시코 외교부</li> </ul>
강의 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과 환경이슈의 진화과정 이해</li> <li>○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 및 정책, 성과에 대한 이해</li> </ul>
강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제 환경회의의 발단 및 환경이슈의 진화과정과 한국의 환경전담기구 발생과정의 비교</li> <li>○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와 환경정책 및 제도, 전담기구에 대한 시기별 분석</li> <li>○ 한국의 녹색성장 개념 및 성과,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 계획에서 명시된 목적과 정책 방향성 소개</li> <li>○ 우리나라가 착수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(GGGI)의 비전, 위임사항,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</li> <li>○ 녹색경제를 위한 로드맵 및 글로벌녹색성장파트너십을 포함한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및 과제</li> </ul>
연수생 질문과 답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청정개발체제(CDM) 사업도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가? (CDM을 통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술이전,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을 함께 추진할 수 있으며, 새로운 기술의 보급으로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 등이 가능하므로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.)</li> <li>○ 녹색성장으로도 한국의 그간 경제성장을 달성 가능한가? (한국의 경제수준은 이미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이전의 경제성장을 달성은 쉽지 않으나, 개도국은 녹색성장으로도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임.)</li> <li>○ 녹색성장과 지속가능개발, 녹색경제 등 유사한 개념의 구분 (각 개념에 대한 연수생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, 경제·사회·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개발인 지속가능개발과, 이들 중 경제와 환경의 두 요소에 집중하면서 환경을 신성장동력으로 고려하는 녹색성장의 차이점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)</li> </ul>
강의와 워크숍과의 연관성 자체 평가 (강의내용 적절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워크숍은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녹색성장을 최초로 국가 비전으로 선포한 한국의 성과 및 전략을 소개하는 강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됨.</li> </ul>
강의 개선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국 환경정책의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, 녹색성장의 추진 결과 개선된 사례의 보완 등 구체성을 보강하여 연수생들의 이해제고를 도울 필요 있음.</li> </ul>
연수생 강의 이해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개념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 및 이해제고가 되었다고 판단됨.</li> </ul>
강의 환경에 대한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.</li> </ul>
강의 준비시 어려웠던 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수생들의 관심사와 선호도에 대한 정보가 없어 강의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기가 어려웠음.</li> </ul>

(2)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

구 분	강 의 내 용
강의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문명 :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</li> <li>○ 영문명 :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ddress Climate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</li> </ul>
강의 일시 및 장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강의일시 : 2012년 10월 16일(화) 15:30 ~ 17:00</li> <li>○ 장소 : 멕시코 외교부</li> </ul>
강의 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발도상국 내 기후변화 이슈의 중요성 및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</li> <li>○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및 한국의 지원사례 소개</li> </ul>
강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후불의(Climate Injustice) 개념 및 근거를 전력사용의 불균형 및 기후변화 취약성을 중심으로 소개</li> <li>○ 기후변화 대응방안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대한 소개 및 각 방안을 대표하는 섹터 소개</li> <li>○ 세계은행과 OECD DAC 회원국들의 물 및 에너지 분야 지원 현황 및 추세 비교분석</li> <li>○ 한국의 녹색 ODA 지원현황 및 추세 소개</li> <li>○ 한국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롭고 추가적인 기금인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(EACP)의 추진 배경, 기금 내용, 주요 분야, 지원된 양자 및 다자 사업 사례 소개</li> <li>○ EACP 사업 중 스리랑카 태양광, 방글라데시 태양광, 몽골 폐기물 사업의 사례 분석</li> <li>○ EACP 사업의 발전 방안 논의</li> </ul>
연수생 질문과 답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EACP 이후의 사업계획 또는 중남미 지역 지원계획이 있는가? (우리나라 정부는 Rio+20 회의에서 EACP 후속으로서의 글로벌녹색성장파트너십을 발표하였지만,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않았음. 단, 아시아 이외의 파트너 지역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.)</li> </ul>
강의와 워크숍과의 연관성 자체 평가 (강의내용 적절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워크숍은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으로서, 개도국과 기후변화의 관계,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사례를 소개하는 강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됨.</li> </ul>
강의 개선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강의 내용의 전반적인 구성은 적절하나, 우리나라 지원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보다 더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</li> </ul>
연수생 강의 이해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례와 지원 실적 현황 중심으로 강의를 이루어져, 연수생들이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.</li> </ul>
강의 환경에 대한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</li> </ul>
강의 준비시 어려웠던 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수생들의 수준과 선호도에 대한 정보가 없어 강의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기가 어려웠음.</li> </ul>

### 3. 국별보고 평가

#### 가. 국별보고 개요

- 1) 벨리즈, 콜롬비아 등 중남미 지역 9개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소개
- 2) 각 국의 인구, 경제상황 등 개황
- 3) 각 국의 온실가스배출 현황,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현황 등 기후변화 관련 현황 데이터
- 4) 각 국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·제도와 이행현황

나. 국별보고 세부 내용

1) 벨리즈

- 국가기후변화청(National Climate Change Office(secretariat)) 하에 기후변화 정책 및 전략의 수립과 이행
- 2차 국가보고서(National Communication)를 제출한 상태이며, 1차보고서에 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제도화한 점이 달라진 점.
- CDM 사업 이행 : 열병합발전(cogeneration), 매립지 사업 등
- 글로벌기후변화연맹(Global Climate Change Alliance) 가입
- 통합 취약성평가 시행 및 국가개발계획에 대한 기후변화의 주류화
- 식수원, 관개 시스템, 망그로브 숲 개발 등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행
- 기후변화 제도 이행의 장애요인 : 취약성 연구 및 데이터 gap 분석에 필요한 역량 한계, 정부부처들의 협조 부족 등
- 발전방안 : 온실가스 인벤토리 질 개선, 역량강화, 인식제고, 최근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등

2) 콜롬비아

- LEDES 프로그램 소개 : 주로 기후변화 완화 프로젝트
- 콜롬비아는 환경부가 주축이 되어, 산림, 공업, 에너지, 폐기물관리, 교통 등의 섹터에 대한 CDM 또는 NAMA 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한 사업의 형성, 발굴을 지원

3) 코스타리카

-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상태
- 기후변화 대응책 중 홍수, 강우 예측 및 측정, 조기경보 등 기상 관련 활동이 다수이나, 기상학 관련 정보 이외의 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필요성 인식

4) 과테말라

-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의하면, 교통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의 증가세가 가장 뚜렷(1990-2005)
- 1차 국가보고서(2001) 제출에 이어, 기후변화 적응 부분을 보강하여 2012년에 2차 국가보고서 제출
- 기후변화 완화는 REDD+ 사업, 적응은 글로벌환경기금(GEF)의 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들과 독일 KfW의 지원으로 수행되는 자연자원보호 사업이 주를 이룸.
-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내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.
-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, 특히 지역 단위 개발사업에 기후변화 적응을 통합하는데 중

- 점을 두고 있으며, 적응을 위한 우선순위를 규명 중임.
- 특히 농업, 홍수 예방 등

5) 온두라스

- 긴 해안선, 잦은 허리케인 및 홍수 등으로 인하여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임.
- 과테말라, 멕시코 등 역내 국가들과의 지역 차원의 협력 강조
- 현재 2차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보유 중이며, 2011년에 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
-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에너지 효율, 재생에너지, REDD+, 고품폐기물 관리 사업들이 전망 있음.
-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생태계 보호, 하천 보호, 취약성 연구가 유망함.
- 국가 차원에서 2011년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으며,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실현화되기 위하여 교육, 구체적인 활동 계획, 지역개발계획, 위험관리 등을 필요로 함.

6) 멕시코

- 기후변화를 위한 대응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해 옴.
- 3차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, 4차 국가보고서 제출 상태
-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전략을 마련하고, 2012-2013 기간에는 200개 이상의 지자체 차원의 기후변화 행동 계획 수립 예정
-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중점 부문 : 에너지 효율, 교통, 건물, 산림, 농업, 어업
-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중점 부문 : 도시 개발

7) 니카라과

- 국토의 산림 비율 높고,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여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함.
-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낮은 편이며,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춤.
- 국가 기후변화 전략,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환경법,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12개 지자체의 행동 계획 있음.
- 민간 섹터와의 협력을 중요시함.

8) 도미니카 공화국

- 최근 도시인구가 급증하여 농촌인구의 3배에 달함.
- 풍력발전소, 위생매립지, 태양광 사업 등의 CDM 사업들을 유치한 바 있으며, JICA의 지원으로 CDM 촉진 사업을 수행함.
-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중점 부문 :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, 교통(천연가스, 바이오디젤 연료 등), 산림
- 기타 부문 : 시멘트, 폐기물, 관광 등

9) 엘살바도르

- 최근 자연재해 극심하게 발생
- 1차 국가보고서 제출(2001), 1차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
- 고품폐기물 처리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, 에너지 효율에 관한 국가 행동계획,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과 같은 국가 위험감소 계획 보유
-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모형을 지역에 맞도록 변경하는 카리브 지역 기후변화

## 센터(Caribbean Community Climate Change Center) 설립

### 다. 평가

- 1) 발표 내용의 구성이 대체적으로 일관되어, 국별로 서로 비교하기 용이한 포맷이었으나, 대부분 포괄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어 서로 비슷한 내용이었음.
  - 각국의 일반현황, 기후변화 현황,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대책 등
  - 국가별로 제도나 사업 등 한 가지 특정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할 필요 있음.
- 2) 발표자의 지위나 연륜에 따라 발표 내용 수준에 차이를 보임.
- 3)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정책이나, 법제도, 사업들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었지만, 녹색성장에 대한 고려는 크게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.
- 4) 영어로 동시통역이 이루어졌지만, 발표자료가 스페인어로 제작되어, 한국 측 관계자들이 통역내용에만 의지하여 발표내용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.

### 4. 멕시코 강사들의 강의내용 적절성

#### (1) 강의내용

- 1) 제목 : 물과 기후변화(Water and Climate Change)
- 2) 내용
  - 물의 양 뿐만 아니라 물의 질도 중요한 요소
  - 식수 내 독성물질에 의해 수질 오염이 심각한 개도국들(특히 브라질, 중국 등)이 많음.
    - 병원균에 의한 질병, 풍토병 만연
    - 특히 지하수 오염문제가 심각하며, 최근 수량이 감소하면서 오염문제는 더욱 심각해짐.
  - 수질과 기후변화 사이의 명확한 관계 규명이 어려우나, 가용 용수를 충분히 얻을 수 없으면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훨씬 높아질 것임.
    - 수질개선을 위해 더 많은 토양과 염소 등을 필요로 하면서,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음.
  -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요구함.
    - 위생, 하수처리, 높은 운영비 등
    - 식수와 화장실 용 물 공급 경로를 다르게 함으로써, 경비 부담 경감 가능
  - 기술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여, 수질과 기후변화의 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 필요
  - 관련 정보의 보급과정 개선 필요

#### (2) 평가

- 1) 수질문제는 기후변화 분야보다 전통적인 환경개선 분야에서 다루어져 온 이슈이나, 본 강의는 수질과 기후변화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음.
- 2) 그러나, 수질과 기후변화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다수 무리하게 관계를 설정한 면이 보이며, 전체적인 강의 내용이 특정 기술 중심으로 설명됨.
- 3) 강사는 동 분야에 정통하며 전문성도 뛰어나다고 판단되지만, 금번 워크숍의 취지 및 주제, 연수생들의 분야 등을 고려할 때, 강의 주제가 특정 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위



크숍의 전체적인 맥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.

## 5. 제한점 분석

### (1) 우리나라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사례 소개 보강 필요

- 녹색성장의 개념이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그 구체적인 사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으나, 비슷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소개한다면, 워크숍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임.

### (2)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

-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, 개발에 대한 컨텐츠는 강의를 통해 전달할 수 있으나, 중남미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, 연수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었음

### (3) 연수생들의 과제 및 국별보고에 대한 피드백 불충분

- 시간제약, 한국 측 강사 간의 협의 부족, 연수생들과의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해 과제와 국별보고에 대해 피드백이 충분치 않았던 점 개선 필요

6. 내년도 워크숍에서 한국전문가 강의 제안사항

(1) 기후재원의 현황과 특징

구 분	강 의 내 용
강의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문명: 기후재원의 현황과 특징</li> <li>○ 영문명: Analysis of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</li> </ul>
강의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최근 기후변화협상에서 가장 많은 진전사항을 보이고 있으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의제임.</li> <li>○ 지난 10월 우리나라가 녹색기후기금(Green Climate Fund)의 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, 우리나라의 동 분야 활동 및 기여를 소개할 필요성이 있음.</li> <li>○ 개도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할 것임.</li> </ul>
강의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재정적 지원이나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획득</li> <li>○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의 유치와 함께, GGGI, 녹색기술센터 등 우리나라의 동 분야 노력 및 성과 홍보</li> </ul>
강의내용 간략소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제사회 기후재원의 종류, 특징, 현황 소개</li> <li>○ 기후재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의 분석, 소개</li> <li>○ 기후재원의 활용 및 접근방안,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논의</li> </ul>
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후변화협상에서 중점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기후재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활용 가능성 강화</li> <li>○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기여도 홍보 및 사례 전파</li> </ul>

(2) 기후변화 분야 민관협력체제

구 분	강 의 내 용
강의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문명: 기후변화 분야 민관협력체제</li> <li>○ 영문명: Public-Private-Partnership(PPP) on Climate Change</li> </ul>
강의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후변화 및 ODA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 민간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, 향후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를 구상할 필요성이 있음</li> <li>○ 선진국 뿐 만 아니라, 개도국의 기후변화 분야 민간부문 육성과 활용 필요함.</li> </ul>
강의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참여 방안을 이해하여, 이를 개도국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</li> <li>○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인식전환</li> </ul>
강의내용 간략소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 세계의 기후변화 분야의 민관협력체제 현황 분석 및 소개</li> <li>○ 가능한 민관협력체제 모델 및 시스템 소개</li> <li>○ 기후변화 분야 민관협력체제 성공사례 공유</li> <li>○ 개도국 상황에 부합하는 민관협력체제 구상안 공유</li> </ul>
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민간부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, 이들과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대 효과</li> <li>○ 우리나라 ODA의 민관협력체제 소개 및 홍보 효과</li> </ul>

## 7. 종합의견

- 본 프로그램은 중남미 국가들의 기후변화 분야 역량강화와 한국의 녹색성장모델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됨.
- 멕시코 측도 많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,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임.
- 지속가능개발과 녹색성장, 녹색경제 개념의 비교와 차이점 분석을 통하여, 새로 대두된 개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, 향후 관련 정책 및 제도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.
-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강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, 중남미 지역에 대한 강사의 사전 이해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### III. 공동연수 사업평가

#### 가. 워크숍에 대한 분석 및 평가

##### 1. 워크숍 내용구성의 타당성

###### (1) 전체프로그램 구성

- “기후변화와 녹색성장”이라는 주제 하에 실시된 워크숍의 전체적인 맥락에서, 온라인 학습, 현장학습, 오프라인 강의 및 국별보고라는 다양한 modality를 활용하여,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었음.
- 프로그램의 제목은 “기후변화와 녹색성장”이나, 두 개념의 접근법이 매우 상이하여 한 프로그램에서 다루기에는 다소 산만함.
- 한국 측 강의 담당자가 프로그램 구성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참여하여, 전체 프로그램과 오프라인 강의의 연속성을 제고할 필요 있음.
- 멕시코 측 운영진들의 지원은 매우 협조적이었으나, 장소의 잦은 이동은 비효율성을 다소 야기함.

###### (2) 워크숍 주제 및 개별 프로그램

- 워크숍 세션 구성 및 개별 강의 진행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짐.
-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이 연계되지 못하고 병렬적으로 다루어져, 연수생들의 국별보고에는 기후변화 이슈만 다루어지는 등 약간의 혼란이 있었음.
- 현장학습의 초점이 생태에만 맞춰져 있어 다소 느슨한 감이 있었음.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 등 경제적 활동과 관련한 현장의 시찰이 없었던 점이 아쉬움.

##### 2. 워크숍 일정의 적절성

- 전체적인 워크숍 일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, 동선이 길었던 점은 개선될 여지가 있음.

##### 3. 워크숍의 SWOT(Strength, Weakness, Opportunity, Threat) 분석

<p><b><u>Strength</u>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학습된 내용을 심층적으로 확인하고, 서로의 지식과 경험의 공유 가능</li> <li>- 현장교육을 통해 관련 정책 또는 제도를 실제로 적용하는 사례의 학습이 가능</li> <li>- 중남미 국가들끼리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유리</li> <li>- 최근에 대두된 유사 개념들의 정리 가능</li> </ul>	<p><b><u>Weakness</u>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동떨어진 중남미 국가들의 수요나 우선순위, 관심사를 한국 측 강의에 반영하기 쉽지 않음.</li> <li>- 강의실의 잦은 이동은 학습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저해함.</li> <li>- 환경 또는 기후변화 전문가이면서, 개발, 중남미에 대한 전문가 섭외 어려움.</li> <li>- 녹색성장은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새로운 개념이라서, 연수생들의 이해를 도울만한 녹색성장 성공사례가 아직 부재함.</li> <li>- 녹색성장의 핵심인 신성장동력 창출의 측면에서, 녹색산업 또는 환경을 고려하는 산업발달 등의 콘텐츠 부족</li> </ul>
<p><b><u>Opportunity</u>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는 없지만, 선진국으로부터 감축의무 부여의 압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, 기후변화 분야의 삼각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됨.</li> <li>- 한국 또는 멕시코의 관련 분야 강점을 더욱 부가시킨다면, 서로 상승효과를 보면서 워크숍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.</li> </ul>	<p><b><u>Threat</u>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언어 장벽으로 인한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은 수업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될 수 있음.</li> <li>- 후속 관리 없이 일회성으로 실시하여 종료된다면,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임.</li> <li>- 공무원 등 공적부문 종사자들로만 구성되어, 기후변화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민간과의 협력방안 모색을 어렵게 함.</li> </ul>

#### 4. 워크숍의 의의 및 기대효과

-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, 특히 쟁점별로 대립이

심한 기후변화협상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.

- 온라인 사전과제 및 국별보고를 통해 중남미 지역의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,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ODA 사업 및 민간 진출에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임.
- 워크숍은 한국과 중남미, 중남미 국가들 간의 기후변화 분야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, 향후 관련 사업의 추진 또는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## 5. 제한점 분석

### (1)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시각 부족

- 단순한 환경보호나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기후변화대응이 아닌, 이를 통한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관점 중요
-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며, 중미 지역에 적합한 사업모델에 대한 학습 또는 산업시찰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-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 워크숍에서 방문한 현장들은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됨.

### (2) 세부 프로그램 간 연속성 및 연계성 부족

- 다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, 각 연도의 프로그램들 간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음.
- 연수생들의 연수 참가 이후의 활동과 성과 등을 모니터링하고, 이를 후속 연도의 연수에 반영하여, 프로그램의 수준을 심화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연수의 연속성과 워크숍 세부 프로그램들의 연계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.

## 6. 내년도 워크숍에 대한 제안

- 내년도 워크숍은 프로그램의 마지막 워크숍에 해당하므로, 1,2차년도 연수에 참가했던 연수생들을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와 활동에 관한 경험의 공유에 중점을 둘 필요 있음.
-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의미에서, 1,2차년도에 멕시코에서 진행했던 워크숍을 한국에서 개최함으로써, 그동안 간과했던 기술 및 산업, 역량강화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 있음.
- 워크숍을 한국에서 개최한다면, 보다 더 원활한 의사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, 영어-스페인어 동시통역보다 한국어-스페인어 동시통역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, 우리나라가 글로벌 녹색 어젠다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이슈의 공

유를 위해,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(GGGI), 녹색기술센터(GTC)의 소개 및 방문도 함께 이루어지면 더욱 효과적일 것임.

#### 7. 종합의견

- 전반적으로 워크숍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양 측이 매우 협조적으로 대처하여 현장학습을 포함한 워크숍이 훌륭하게 수행되었음.
- 단, 연도별 프로그램 간의 연속성, 세부 프로그램 사이의 연계성이 보완되었다면 워크숍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았을 것으로 예상됨.
- 마지막으로, 장소 섭외 및 강의실 선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되고,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 간의 상호이해와 정보교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
### IV. 종합관찰 및 건의사항

#### 1. 종합의견

- 금번 “기후변화와 녹색성장” 공동 연수는 중남미 국가들의 기후변화 분야 역량강화와 한국의 녹색성장모델을 전파함으로써, 중남미 지역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됨.
- 한국과 멕시코 양측이 연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,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연수가 진행되었음.
- 온라인 학습을 통한 사전학습, 현장학습을 통한 실제 사례 관찰, 워크숍 및 국별보고를 통한 경험 공유 등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하고 효과적인 modality들이 활용됨.
- 향후 연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, 연도별 프로그램 간의 연속성, 세부 프로그램 사이 연계성의 보완을 필요로 함.
- 기후변화 또는 녹색성장 중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.
- 기후변화와 중남미 지역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연륜 있는 강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## 2. 내년도 사업 제안

구 분	제안사항
사업구성	기후변화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의 발굴 및 계획
내 용	<p>약 2주 동안 2~3개 국가의 전문성이 높은 관련자들로 구성된 참여자들이 서로 협의 및 정보 교환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의 발굴 및 지원요청 방안 모색</p>
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원국의 주도로, 진정한 수요에 근거를 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</li> <li>○ 교육과 워크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구체적인 사업의 발굴이라는 실질 결과물 도출</li> <li>○ 부산 HLF-4에서 도출된 8개의 빌딩 블록들 중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고려</li> </ul>
한국의 관련 분야 컨설팅 활성화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참여 국가들의 현황 파악, 수요분석, 국가개발계획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들의 도출</li> <li>○ 국제 기후변화 특화 재원의 특성 및 현황을 분석하여, 기금에 대한 접근성 강화</li> <li>○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국가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, 국내 기후변화 및 개발 컨설팅 업체가 개도국 사업발굴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제공</li> </ul>



